

트리하우스(Treehouse)

해당 번역본은 이용자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참고용으로 번역된 것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문 작성 주체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나무는 해당 번역본 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고,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프로젝트 소개

Treehouse는 디지털 자산에서 고정 수익(Fixed Income)을 위한 두 가지 핵심 프리미티브, tAssets와 분산 기준금리 (DOR)을 도입하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tAssets는 차익 거래를 통한 수익 최적화를 목표로 설계된 차세대 유동화 스테이킹 토큰(LST)으로, 분절된 온체인 이자
율 시장의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DOR는 LIBOR나 SOFR과 같은 기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조작 리스크와 중앙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형 기준
금리 시스템으로, 새로운 합의 기반 메커니즘을 통해 미래 지향적 이자율 곡선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tAssets

tAssets는 기본 PoS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이자율 차익 거래 전략을 통해 얻는 “LST 2.0” 모델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제품인 tETH는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Lido의 wstETH를 사용하여 Aave와 Spark 등 주요 대출 프로토콜 간 차익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Assets는 DOR 생태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참가자(패널리스트 및 운영자)는
tAssets를 스테이킹할 수 있으며, 잘못된 데이터를 제출할 경우 슬래싱 대상이 됩니다. 그 대가로, 사용자들이 지불한질의
수수료에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DOR

DOR은 Treehouse의 분산 기준금리 시스템으로, DeFi 금융 상품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검열 저항적인 벤치마크를 가
능하게 합니다. 결정론적 이자율 예측치는 정기적으로 제출되며, 합의 과정을 통해 미래 이자율 곡선이 형성됩니다.

DOR 생태계는 다섯 가지 이해관계자로 구성됩니다.

- 운영자(Operators): DOR 피드를 관리하고 시스템 가용성을 유지합니다
- 패널리스트(Panelists): 이자율 예측치와 시장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 참조자(Referencers): DOR을 활용하여 금융 상품(예: 금리 스왑, 고정금리 대출 등)을 설계합니다
- 위임자(Delegators): 운영자 및 패널리스트에게 스테이킹하고 거버넌스를 지원하며 보상을 획득합
니다
- 최종 사용자(End Users): 투명하고 탈중앙화된 금리 인프라로 구동되는 새로운 DeFi 프리미티브의 혜택을 누릴
등록되지 않음 x

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함께 참여 기반 경제를 구성하여, 온체인 금융 시장에서의 투명성, 탈중앙성,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토크노믹스

Treehouse 토큰(TREE)은 Treehouse 플랫폼 내에서 유틸리티와 거버넌스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사용자, 보유자, 개발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TREE는 Treehouse 생태계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REE 토큰의 핵심 유틸리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의 수수료(Querying Fees): 모든 참조자는 Treehouse 이해관계자에게 TREE로 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생태계의 수익을 창출하며, DOR 데이터를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스테이킹 요건: 패널리스트의 이자율 제출 정확성을 보장하고 프로토콜의 성공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패널리스트는 DOR 금리 설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TREE를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3. 프로토콜 거버넌스: TREE 보유자는 거버넌스 권한을 부여받아, 프로토콜의 파라미터와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DAO 지원금: DAO는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위한 자금을 배분하며, Treehouse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을 장려합니다.
5. 합의 보상 지급: Treehouse가 운영하는 DOR의 패널리스트 및 위임자에게는 각 관측 기간마다 예측 정확도에 기반하여 TREE 토큰이 분배되며, 이는 합의 메커니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DOR 기반 데이터 스트림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토큰 분배

- 커뮤니티 보상(20%)
- 투자자(17.5%)
- 팀(12.5%)
- 트레저리(12.5%)
- 커뮤니티 에어드랍(10%)
- 생태계 펀드(10%)
- 주요 기여자(5%)
- 거래소 파트너십(3.75%)
- 미래 에어드랍(5.75%)
- 유동성 공급(3%)

토큰 발행 일정

- 전략적 투자자: 6개월간 락업. 이후 10%가 해제되며, 남은 90%는 이후 24개월간 선형 베스팅됩니다.
- 팀 및 핵심 기여자: 12개월간 락업. 이후 10%가 해제되며, 남은 90%는 이후 30개월간 선형 베스팅됩니다.
- 재무부: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TGE 시점에 10%가 해제됩니다. 이후 6개월간 추가 발행은 없으며, 남은 90%

는 이후 42개월간 선형 베스팅됩니다.

- 생태계 펀드 및 커뮤니티 보상: 48개월 동안 선형 베스팅됩니다.
- 유동성 공급, 커뮤니티 에어드롭, 향후 에어드롭: 각각의 에어드롭 또는 배포 이벤트 시점에 전량 해제됩니다.

로드맵

Treehouse는 다양한 시장으로 제품 제공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 BNB, Solana와 같은 다른 L1에서 tAssets 출시
- tETH를 L2로 확장하여 접근성 강화
- tAssets의 프로토콜 통합 확대
- ETH 스테이킹 금리 선도계약(FRA)에 대한 OTC 시장 구축
- ESR FRA를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
- DOR을 CeFi 지수 감사에 활용하고 벤치마크 라이선싱 추진
- 추가 L1에서 스테이킹 금리 피드 출시